

### 친일과 재산 첫 국가 환수

# 토지·임야 25만㎡... 고희경 땅 최대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 대신 아들〉

# 전체 친일축적 재산의 0.64% 불과

〈1910~1924년 임야·토지조사사업 당시 3,994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일 내린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 토지와 임야는 25만4천906㎡이지만 대상자 9인이 실제로 일제에 의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토지에 비하면 '빈산의 일각'이다.

이들은 1910~1918년 토지조사사업과 1916~1924년 임야조사사업 당시 3천994만6천266㎡의 땅을 소유하게 됐지만 이번에 귀속 결정이 난 토지는 전체 친일축적 재산의 0.6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9명 가운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토지와 임야 1천572만9천167㎡를 확보한 이완용·이병길 부자의 땅이 가장 많다.

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 총리대신을 지낸 대표적인 '매국노'인 그는 정미칠조약과 한일합병의 대가로 받은 각종 하사금과 국유 미간지나 임야를 무상대부받아 3자에게 매각해 생긴 차익으로 전북 군산

과 김제, 부안 일대의 논을 집중 매입했다.

이완용 내각에서 내부대신 등을 역임하며 국권피탈을 위한 청원서를 내는 등 매국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준은 아들 송중현과 함께 856만8천298㎡의 토지를 쟁겼다. 그 역시 이완용과 마찬가지로 하사금 수령과 국유지 무상 대부를 통해 재산을 늘렸지만 1925년 죽고 난 뒤 5년 만에 대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많은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고희경은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 대신인 고영희의 장자로 자작을 물려받은 뒤 백작으로 승격해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등 관직을 맡았다.

이재극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고 이왕직장관, 신사회발기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조중응은 '정미칠조약' 당시 법무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을 지낸 뒤 자작을 받아 중추원 고

문 등을 역임했다.

권중현은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으로 매국행위를 했으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 작위와 은사 공채를 받은 뒤 중추원 부의장·고문 등을 거쳤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조사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 명단에는 을사조약과 정미칠조약, 한일합병조약 등과 관련해 매국행위를 한 14명과 수작과 습작 등 작위를 받은 125명, 제국의회의 귀족원과 중의원에 소속된 7명, 중추원 소속 306명이 포함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6~9조에서 매국행위자와 작위 수, 제국의회·중추원 활동가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일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내용

친일반민족 행위자	주요 친일 행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백만원)
고희경	지적승적, 백작승격,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 사무관	63	198,884	1,724
권중현	지적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3	201	-
권대환	지적수작, 중추원 부의장·참의	10	21,713	1,303
송병준	지적수작, 백작승격, 중추원고문, 일진회 총재	1	40	-
송중현	백작승적, 중추원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의원	16	3,320	132
이완용	한일합병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격, 중추원 고문·부의장	16	10,928	70
이병길	후작승적, 중추원참의	18	3,983	40
이재극	한일합병 공으로 남작 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발기위원	17	7,273	127
조중응	한일합병 당시 농상공부대신, 지적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10	8,601	201
총계		154	254,906	3,597

(자료제공 =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결정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료3단체장 정형근 의원 만나 로비

### 참석자 "연말정산 간소화 반대법안 발의 요청"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3단체장이 지난해 12월께 국제청의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면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한의사협회 임종희 회장은 서울 강남의 P호텔에서 정 의원을 함께 만나 연말 정산 간소화를 무산시키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의료계 단체 회장들이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을 막기 위해 반대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 의원에게 일단 공청회를 열어 이를

중심으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으며 한 협회장은 반대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사민단체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까"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정산 간소화는 국제청이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때 국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모아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의료계가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헌법소원, 행정소송 제기, 변호사 자문료 등에만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청탁을 하면서 정 의원 측에 불법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프로골프협회 공식 복분자 와인

6·15 민족통일대추전 공식 견배주 /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  
2006광주비엔날레 공식 복분자와인 / 2008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공식 와인



# 대한민국 최초 100% 친환경 인증 한국산 복분자로 빛은 복분자와인

## Red Mountain



유럽풍 정통와인  
프리미엄급  
750ml 출시

자·매·품  
친환경 인증 10% 국산 복분자즙

## Red Mountain 100

함평천지복분자농조합법인

주문전화 061)322-0202, 322-6167~8

## 전남도, 내년 국고 5조8,412억 지원 건의

전남도는 2일 2008년도 국고지원 요청 지역 현안 사업비를 5조 8천41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올해 국고지원 예산 확보액 4조 8천397억원보다 20.7%, 지난해 건의액 대비 6.4%가 각각 많은 규모다. 내역별로는 신규 사업이 147건 7천331억원, 계속사업이 122건 5조 1천81억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수급불안 품목 작목전환 지원(100억원) 등 FTA 대응을 위한 농림부 사업이 8건, F1경주장 건

입도로 개설(241억원) 등 문화관광부 6건, 우주발사 전망대 설치 등 과학기술부 2건, 천일염 산업화 기반 구축(189억원) 등 산업자원부 8건이다.

또 장애인 희망촌 조성(43억원) 등 보건복지부 5건, 무안기업도시 폐기물처리장 설치(202억원) 등 환경부 5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광역교통망 건설(40억원) 등 건설교통부 5건, 세계 해양영양공원 조성(100억원) 등 해양수산부 5건 등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남이섬과 영(똥)한 상상법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난달 문화부 기자 연수차 남이섬을 방문했다. 이선희가 'J에게'를 부르던 '강변가요제'를 추억케 하는 남이섬은 몇년전부터는 '겨울연가' 등의 영웅으로 외국관광객들의 필수코스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쇠락해가는 유흥지에서 '문화와 생태계 보고(寶庫)'로 탈바꿈한 (주)남이섬에서 인상 깊었던 건 "후자때까지 월급으로 100원만 받을 테니 아무것도 간섭하지 말라"며 2001년 취임한 강우현(54) 사장이었다.

과장을 조금 하자면 '태어나서 들어본 가장 재미있는 강'이었던 감사장의 이야기는 '상상'이 화두였다. '영똥한 상상'이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의 감사장에게 '상상'과 '역발상'은 어떤 급전격 지원보다 강한 무기였다.

그는 방문객이 2001년 27만명에서 2006년 170만명으로 급증하고 매출액도 5배가 늘어 100억원을 넘어선 '우수한 성적표'는 '상상의 힘'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믿는다.

남이섬은 1년전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입장

권은 '여권'으로 불리고 선택장에는 'Immigration'(입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행사 땀 테이프 커팅 대신 '가래떡'을 자른다. 버려진 참이슬 술병은 조형물로 자태를 뽐내고 망가진 샤워꼭지는 독특한 분수로 변신한다. 상상과 역발상의 사례다.

CEO의 마인드가 변해야 하고, 예술가의 상상과 흔적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광주의 '예술의 거리'에 실행했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풍경이 있었다.

몇년전 예나 지금이나 '예술단지' 신세인 예술의 거리를 '확' 바꿔보려는 젊은 미술가들이 있었다. 재미있는 스트리트 퍼니처도 만들고, 독특한 간판도 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경관념에 빠진 구형 등의 반대로 푹푹 튀는 상상력은 머릿속에만 머물고 말았다.

이후 예술의 거리는 어떻게 변했나. 상상력의 빈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 하나 없는 유치한 투미나리에는 인적 없는 예술의 거리를 쓸쓸히 밝히고 있다. 거액을 들인 간판 역시 예술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물개성'의 전철이다.

광주에서는 을 가을 전국체전이 열린다. 시는 성공 개회를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다. 71억원을 들여 도로시설물을 개보수하고 기존의 나무를 뽑아내고 가로수도 새로 심는다고 한다. 예술계 등 다양한 세대를 이루는 '범시민 지원단'이 꾸려지고, 예술계도 의견 개진을 준비중이다.

성공 개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건 좋다. 문제는 지나치게 '규모'와 '겉치레'에 집착해 '상상력'이 빈곤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예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진정 기우(杞憂)이기를... /mekim@kwangju.co.kr

